

광양시, '수소 산업도시' 조성... 독일 사례 접목한다

시·의회 5박 7일간 벤치마킹 지멘스 공장 등 수소시설 방문 프라운호퍼연구그룹과 협약 "실질적 적용 방안 모색할 것"

광양시가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수소생태계 고도화로 세계적인 도시 에너지시스템 모델을 구축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나섰다. 수소 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5박 7일간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인 독일의 인프라를 견학하고 수소도시 조성 및 분산에너지 구축방안

에 대해 머리를 맞닿 예정이다. 독일은 오는 2030년 전력 생산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3년 탈원전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2023년 총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6%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수소도시 1기로 선정된 이후 수소 생산 및 활용 등 여건 변화로 수정된 마스터플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에 따라 수소 생산방식 및 산업·주거 등 건축물과 다양한 모빌리티 활용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생활권 단위(3~10km)에서 그레이수소를 도시 내에 적용하는 기존 수소도시의 기술적 한계 및 한정된 활용분야를 보완해 광역단

위에서 블루·그린수소를 수송·산업·건물·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 분야에 활용하는 대책이다.

현재 청정수소 제조설비 도입계획에 따라 수소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그룹 IWES 연구소와 수소생산시설 자문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지멘스 에너지 베를린 공장의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생산라인을 방문한다. 아울러 로이나 화학단지 린데(Lined)사의 PEM 전해조 공장을 방문해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통한 소비처(수소충전소 등)와의 유통구조를 확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하우스 지역인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주거단지의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견학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소제조 방식을 비롯한 설비 구축 등에 대한 국내 기술성숙도를 비교·분석하고, 상용화 가능한 설비 도입을 수소생산시설 타당성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양시는 정부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에 따라 수소를 주 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수소도시의 단계를 넘어, 향후 생활·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특화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전해 수소 제조 방식은 현재 기술적 한계와 경제성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라며 "상용화 시점에서 우리 시 발전 용량에 적합한 시설 도입에 있어서 다양한 검증 채널이 필요한 만큼 산업·기술 동향 파악 및 선진 벤치마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모두愛학교' 수강생 모집 24일까지, 선착순

순천시가 2025년 1학기 '모두愛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 모집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모두愛학교는 시민들이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자격증 △외국어 △디지털 △생활기능 △건강관리 △인문교양 △문화예술 △원어민 외국어의 8개 분야 117개 강좌가 오는 3월4일부터 6월9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e-러닝 학습 △e-러닝 △평생e-on학습 등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과정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강의는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신대도서관, 별량초 별빛나루 등 6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각 기관은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수강신청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순천시평생교육포털 누리집(www.sc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평생교육과(061-749-6670)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이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구례군, 총 230대 대상

구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례군은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125대, 4등급 95대, 지게차·굴착기 10대 등 총 23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경유 자동차만 지원했던 5등급 조기 폐차를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 분지가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 가능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4일까지며 신청은 구례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례군 환경과 환경관리팀(061-78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전면 재검토

순천시는 오는 3월17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당초 송광, 낙안 등 읍면 지역의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 간격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도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간선버스를,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지간선 환승계획'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읍면 지역의 주요 이용층인 고령층의 환승 불편 문제를 비롯해 30여개 노선을 동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과 환승 시스템 운영 관련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노선 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장흥군은 한우 산지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에 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2024년 12월13일 축산물 이력제를 기준으로 66마리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사료비 인상액 108만원 중 50%인 54만원이다. 장흥군 전체 한우 사육 1585농가 중 1369농가(86%)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이달 중 해당 읍면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료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산지 한우가격은 하락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군 '신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품 배부를 돕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 '신타인능해 희망나눔가게' 운영 재개

구례군은 최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촉진하는 '신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나눔가게는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주민들이 기부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나눔 공간이다.

이용 대상자는 월 1회 방문해 2~3개의

품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물품을 단순히 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10점의 열매점수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희망나눔가게는 첫날부터 160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기부를 통해 마련된

식품과 생활용품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이번 재운영을 맞아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동대, 마을 이장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가게 운영을 도왔으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희망나눔가게는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과 나눔 정신을 실현하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양시, '도서구입비 지원' 사립작은도서관 모집

5곳 선정, 200만원 지원

광양시가 '2025년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신간 도서 확충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건물 면적 33㎡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을 갖춘 민간 도서관으로, 현재 광양시에는 총 2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돼 운영 중이다.

광양시는 올해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5개 사립작은도서관을 선정해 개소별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모든 사립작은도서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설·자료·운영 현황 및 예산 계획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한 후, 광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은 광양시청 또는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양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bluesky0304@korea.kr) 또는 우편(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앙도서관 도서관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서관과 도서관지원팀(061-797-38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